

통통성경으로의 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  
: 능서상동교회의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종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Jongeun Choi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RAISING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MINISTRY OF TONG BIBLE : FOCUSING ON THE ‘TONG BIBLE - STORY MINISTRY’ OF NEUNGSEO SANGDONG CHURCH**

Jongeun Choi

Neungse Sangdong Church, Korea

This study rejects the general trend in Korean churches today that there is no future for Korean churches because children are decreasing and Sunday schools are disappearing. Nevertheless, many children still attend church, and many churches are doing their best to educate children through Sunday schools and teachers.

In these encouraging efforts, we begin with the concern that what we should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should be to focus o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as spiritual leaders who embrace the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based on the Bible.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much of the next generation of Sunday school children will grow into the next generation with a Bible-centered faith when pastors with such concerns conduct their ministries with a methodology suitable for raising the next generation.

And the methodology suitable for this study is ‘Tong Bible.’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Tong Bible, which can convey the big picture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stories in ministries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it is also a work to confirm what kind of functional results are derived for raising the next generation.

The conclusion reached through interviews with teachers who worked together on the ‘Tong Bible – Story Ministry’, with children who experienced it, and with the students’ survey is that rather than focusing on whether it is a ‘big church’ or a ‘small church’ or whether there are many or few children in the church, what we should focus more on is the fact that each of us should tell the children the entire Bible as a ‘Story’ and raise the next generation as ‘One Person’ who embraces the values of the great kingdom of God, and that we should all become ‘One Person’ who does our best in such ministry.

I hope that everyone who comes across this research will sympathize with and put into practice this fact.

## 국문초록

### 통성경으로의 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 : 능서상동교회의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을 중심으로

최 종 은

능서상동교회, 경기도 여주, 대한민국

이 연구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교회학교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풍조를 지양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노력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영적인 리더로서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고민에서 시작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목회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합한 방법론을 가지고 사역들을 진행하였을 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만큼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겸비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은 ‘통성경’ 이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사역들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는 통성경의

방법론을 적용시킴으로써,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한 어떠한 순기능적인 결과들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을 함께 진행한 교사들과, 경험한 어린이들의 인터뷰와, 학생들의 설문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큰 교회’ 이건, ‘작은 교회’ 이건,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건, 어린이들이 적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내용은, 우리 각자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 로 들려주며,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한 사람’ 으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접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목차

감사의 글 .....	x
그림 목차 .....	ix
<b>I. 서론 .....</b>	<b>1</b>
A. 문제 제기 .....	1
B. 연구 방법 .....	5
C. 연구 범위와 제한 .....	6
<b>II. 통통성경과 성경통통독 .....</b>	<b>8</b>
A. 통통성경이란? .....	8
B. 성경통통독 .....	12
C. 성경통통독의 목적 .....	16
<b>III. 통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 .....</b>	<b>20</b>
A.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	20
B. 구약에서 본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	23
C. 신약에서 본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	27
<b>IV.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실제 .....</b>	<b>33</b>
A.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의 중요성 .....	33
B.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설교 .....	36
C.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	41
D.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지역 아동 행사 .....	45
E.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청소년 수련회 .....	51
F.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사 교육 .....	56

G.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 참여자들의 인터뷰 .....	60
A.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터뷰 ...	60
B.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지역아동 행사에 대한 인터뷰 .....	61
C.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청소년 수련회 설문 .....	62
D. 통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사 교육에 대한 인터뷰 .....	65
E. 결론 .....	67
A. 요약과 평가 .....	67
B. 결론과 제언 .....	68
참고문헌 .....	74

## 그림 목차

〈그림 1〉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	14
〈그림 2〉 큐티 세미나 교재 예시 .....	34
〈그림 3〉 설교 예시 1)의 설교 당시, 사용된 이미지 .....	38
〈그림 4〉 설교 예시 2)의 설교 당시, 사용된 이미지 .....	41
〈그림 5〉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포스터 .....	43
〈그림 6〉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사진 .....	44
〈그림 7〉 지역아동 행사 - 종이비행기 대회 사진 .....	46
〈그림 8〉 지역아동 행사 - 아지트 데이 큐시트 .....	48
〈그림 9〉 지역아동 행사 - 아지트 데이 활동 사진 .....	49
〈그림 10〉 불신자 어린이들의 솔로몬 재판 이야기 시연 사진 .....	50
〈그림 11〉 청소년 수련회, 첫째 날 설교 당시 사용한 이미지 .....	52
〈그림 12〉 청소년 수련회, 둘째 날 설교 당시 사용한 이미지 .....	53
〈그림 13〉 청소년 수련회 설교 사진 .....	54
〈그림 14〉 청소년 수련회 설교 피드백을 위한 설문지 .....	55
〈그림 15〉 교사교육: 이야기 성경공부방 포스터 .....	58
〈그림 16〉 교사교육: 이야기 성경공부방 활동 사진 .....	59
〈그림 17〉 사영리 암송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교부된 양식 .....	70

## 감사의 글

아직도 달려가야 할 목회와 신앙의 여정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짧고 길었던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된, 통통성경 렉처리 코스와 드류 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속에서 최선의 열정으로 지도해 주셔서, 수많은 목회적 영감과 소망을 향한 결단을 갖게 해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유연하게 가교 역할을 해주시며, 논문 연구의 마지막까지 세심히 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며, 늘 깊은 학문 연구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여정을 소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장교회 김문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위한 연구를 위해 목회와 사역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을 입력하였음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과 결과들로 출력해주신 능서상동교회 성도님들, 교사들,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과정을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고, 함께 동역해 주고 헌신해준 아내 이은혜 사모와 세 자녀들에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부족하게나마 건네며, 마지막으로 이 목회의 과정을 묵묵히 기도와 중보로 또한 물심양면 당신들의 것을 다 내어 주시는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최 종 은

## I. 서론

### A. 문제 제기

필자는 2013년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약 9년 동안,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대형 교회들에서 목회적인 경험들을 쌓았다.

그 시기에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5)

이유는 교회의 생명력과 수명을 가늠하는 척도가 늘 다음 세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성인인 우리는 늘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sup>1</sup>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 후, 2021년 7월 29일,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위치한 능서상동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이곳에서의 목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예배 예배와 모임의 한계
2.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소멸’ 위험 지역 5개 도시로 분류될 만큼의 도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정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sup>2</sup>

---

<sup>1</sup> 이병렬,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68.

<sup>2</sup> “경기도 23개 시군, 인구소멸 '위험·주의'...대책마련 시급

### 3. 청장년층의 이탈로 인한 다음 세대 및 교회학교 교사의 부재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팬데믹이 끝나가며, 주변 교회들보다 예배와 모임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교회가 위치한 면 소재지에 경강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지역 분위기는 역동적으로 바뀌어 갔으며, 학교 앞 전도를 통하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혼풍 속에서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생겨 났고, 기존 성도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하며, 예배와 사역에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동참하였다.

그렇게 1여 년이 지나며, 전혀 다른 곳에서 목회적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언어’의 한계였다. 대도시의 대형교회들에서 사역하며 사용하였던 필자의 신학적, 신앙적 언어들, 현재 교회의 예배, 사역, 성도들,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그로 인하여 어떠한 더 깊은 교제와 비전의 공유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설교, 성경공부, 다음 세대 예배와 교육, 교사 세미나와 같은 사역들 속에서, 듣는 이들에게 맞게끔 나의 ‘언어’가 새롭게 세팅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으로 힘들어 할 시기에, 지인을 통해 조병호 박사의 통 성경 렉처러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드류 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조병호 박사의 통 성경 강의와, 레놀드 스윗 교수의 ‘기호학’ 강의를 들으며, 숨통이 트이는 듯한 시원함을 받았다.

그동안 너무 성경의 이야기를 뒷전으로 하고 신학적 이론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경을 구절주의 또는 암송, 주입식 방법이 아닌, 이야기와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는 훈련과 연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얻게 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고보니, 성도들이 종종, 필자에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읽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새로 등록한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문득 든 생각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라고도 말했었는데, 그럼에도 필자는 너무 나의 언어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수업을 통해 필자는 연구하고 싶은 문제가 선명하게 제기되었다. 두 단어로 간추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야기’ 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 이다.

목회자 ‘한 사람’ 이 통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영역 전반에 걸쳐 성경을 ‘이야기’ 로 전달하며 사역하였을 때에, 예배와 설교, 성도의 교제와 관계, 여러 사역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하나님은 늘 각 시대 속에서 ‘한 사람’ 을 찾으셨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 거기를 샅샅이 조사하고 급히 찾으라고

명령하셨다.<sup>3</sup> 에덴 동산 같고 물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아니 ‘한 사람’ 없어서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sup>4</sup>

그리고 그 ‘한 사람’ 을 찾고, ‘한 사람’ 을 세우는 일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sup>5</sup>고 교훈한다. 즉, 가장 위력 있는 가르침은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sup>6</sup>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교회학교가 사라졌다고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지난 2년 간, 능서상동교회가 속하여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주 서지방 28개 교회의 행정을 파악하고 기록, 보관하는 서기직을 맡으며, 필자가 확인한 통계를 보니, 28개 교회, 3,388명의 교인 중에는 아동 원입인과 세례아동을 합하여 376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여전히 28개 교회 중, 8개의 교회가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역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교회학교가 사라져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어린이 한 사람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영적 리더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교회의 시스템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필자의 교회가 속한 지역의 28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3,388명이나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한국교회는 미약하지만 성장 중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무수히 많다.

<sup>3</sup> 예레미야 5:1

<sup>4</sup> 하용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11.

<sup>5</sup> 잠언 22:6

<sup>6</sup> 이병렬,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74.

다만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줄 ‘한 사람’이 부족하여,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세상에 파송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에 과분한 순종적이며 성실한 성도들이 충분히 있다.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마음껏 심어줄 만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통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을 이야기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을 풍성히 불어넣어 줄 ‘한 사람’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필자가 연구하기를 원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는 바이다.

## B.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통성경 렉처리 코스와 듀르 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배운 통성경의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소개할 것이다.

먼저는 통성경이라는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통독의 의미, 방법, 목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을 밝히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통성경의 이야기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간 성경적 사례와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즉, 만 5세 때부터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의 그림을 큰 그림으로, 통성경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sup>7</sup>

즉, 성경 시대에도, 또한 오늘날에도 통성경의 방법론은 그야말로 성경을 전체로, 또한 유연하게 연결하며, 또는 하나의 이미지로 쉽게 전달하기에 가장 탁월한 ‘이야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 통성경을 통해 습득한 성경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필자가 목회하는 능서상동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현장 속에서 적용해보는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한다.

통성경의 이야기 사역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현장으로서 설교,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지역아동 행사, 청소년 수련회 집회, 교사 교육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 C. 연구 범위와 제한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능서상동교회는 약, 성인 35명, 학생 10명, 어린이 15명 정도가 예배하는 교회이다.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여러 사역에 적용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그리 큰 연구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

---

<sup>7</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서울: 통독원, 2015), 142.

또한 논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35년 이상 유지되어온 능서상동교회와, 또한 오늘날의 교회 모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견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연구 집단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목회자 ‘한 사람’의 방향성과 가치, 목표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에, 그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 연구의 필요성을 익히 서두에, ‘한 사람’, 그리고, ‘이야기’에 두었기 때문에, 필자 ‘한 사람’의 목회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범위를 통성경 - 이야기 사역으로 적용하는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연구 범위와 제한성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필자의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함께 한 교사들과, 참여한 어린이들의 인터뷰, 그리고 학생들의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의 고무적이고 순기능적인 결과로서의 건강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

## II. 통통성경과 성경통독

### A. 통통성경이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필자의 집에는, 커버가 너털너털해지고, 종이들이 다 헤어져버린 낡은 성경책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보며, ‘아니, 어머니는 왜 저 낡은 책들은 버리지 않으실까?’ 속으로 물었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현재 필자의 서재 책꽂이에도 그때 그 낡은 책 = 성경이 버려지지 않고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세련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다 낡은 헤어져버린 성경은 쉽게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율법) 앞에 모든 죄성과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들통나 버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되, 그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즉, 십자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곧, 성경책으로 인식하고,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기에, 던져 버리지도, 태워 버리지도 못하고 다 낚아지도록 고이 모셔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 손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 고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살아 있는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까?

실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딜레마일 것이다. 수많은 설교자들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전체 대신 부분으로 파편화해 왔다. 모든 성경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기보다, ‘예화주의’와 ‘요절주의’를 선호하며, 덩달아 성도들에게도 살아 있는 말씀이 아닌 ‘불량 식품’을 주거나 ‘편식’을 하게 만든 것이다.<sup>8</sup>

이러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서도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은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조병호는 ‘통통성경’을 제시하였다.

조병호는 ‘통통이란, 기도와 묵상의 형태로 말씀을 읽는 신성한 성경읽기 방식을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이다. 이는 성경을 통한 통전적 기도의 방법으로 동서양이 만나고, 직감과 의도가 만나며, 구술과 도식의 만남이자, 소리가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그러한 의미에서의 통성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통통으로 보자는 것이다.

1. 첫째, 시간, 공간, 인간을 통통으로 보자는 것이다.

<sup>8</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8-24.

<sup>9</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4), 13-14.

성경에는 ‘태초’ 부터 ‘종말’ 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 년의 시간이 세로축인 통시로 들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며 들어 있다. 심지어 인간 삶에 가장 기본적인 시간의 단위인 일주일이 창세기 1 장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6 일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 일째 되던 날을 복되게 하시고 쉬셨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든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약속의 땅 - 가나안’ 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들 두려고 지정한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공간들이다. 이것은 온 우주 공간, 각 나라와 거주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단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온 우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5,000 명의 인간을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 등도 있겠으나,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 명, 여로보암, 하나냐,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을 주관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2,000 년의 시간, 1,500 곳의 공간, 5,000 명의 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通성경이다.<sup>10</sup>

2. 둘째,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보자는 것이다.

<sup>10</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0), 412.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경은 개인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가정만을 살리는 책도 아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통통으로 담고 있는 책이다. 개인은 가정에 속해 있고, 가정은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성경 속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통성경이다.<sup>11</sup>

3. 셋째,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보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 즉,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영 도구에 불과했던 5대 제국은 무서워했으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

<sup>11</sup> Ibid.,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413.

그러므로 성경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통으로 보는 것이 통통성경이다.<sup>12</sup>

이렇게 통통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로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sup>13</sup>

## B. 성경통통독

“통독通讀은 이러한 통통성경의 -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제국들,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 보는 방법론으로 책 전체를 한숨에 읽는다는 뜻을 품고 있다.” 조병호가 일년일독 통독성경 머리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통독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순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방법론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통독의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 1. 첫째, 성경통독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성경은 한 권의 책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 있고, 그 66권은 또다시 한 권의 책이 된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66권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sup>14</sup>

<sup>12</sup> Ibid.,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414.

<sup>1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4.

<sup>14</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417.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매일 한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안던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되기 쉽다. 그것은 결국 영의 양식을 편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성경 66 권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읽는 성경통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sup>15</sup>

성경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다. 또한 어떠한 위인전보다도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의 일대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뒤를 이은 제자들의 행적에는 무수한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그려져 있다.<sup>16</sup>

그러하기에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선택해 보거나 관심 있는 주제로만 찾아서 읽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한 번에 읽을 때, 우리 손에 들린 한 권의 책이, 풍성한 생명력과 능력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다.

## 2. 둘째, 성경통독은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기존의 성경은 역사순으로 편제되지 않고, 성경의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하여 모아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의 분류에 따라 읽어나가게 되면 역사 흐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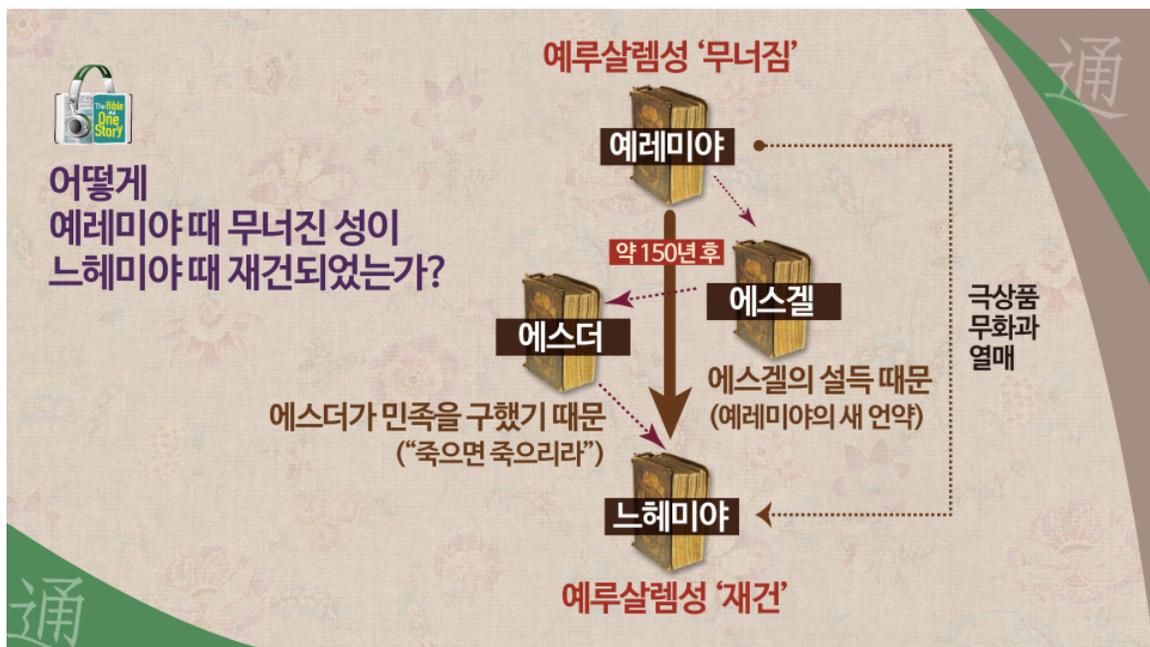
<sup>15</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0.

<sup>16</sup> Ibid., 41.

헛갈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어려워진다.<sup>17</sup>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예레미야가 훨씬 뒤쪽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를 읽고 한참 뒤에서야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난 이후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역사를 경영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보다 150 년이나 먼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sup>18</sup>

〈그림 1〉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성경의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sup>17</sup> Ibid., 42.

<sup>18</sup> 조병호, 『48 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11.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sup>19</sup>

성경의 한두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독해가다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며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된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펴보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흐름의 기초,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과 관계와 의미에 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인 것이다.<sup>20</sup>

3. 셋째,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계약 중심의 서구 사회는 언약과 계약을 중요시하는 수평적, 평등주의적 이익 사회로 대표되며, 법과 법치, 과학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관계 중심의 동양 사회는 관계와 정을 중요시하는 수직적, 가족주의적 공동체로 대표되며 덕과 덕치, 종교와 영성을 강조한다.

서양은 그동안 경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해 왔고, 이와는 다르게 동양의 전통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기쁨, 슬픔, 그리움, 아쉬움, 분노, 기다림, 행복, 감사, 고마움,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sup>19</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4.

<sup>20</sup> Ibid., 45.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기뻐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궁핍이 불타는 마음 등,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통독의 방법이다.<sup>21</sup>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뿐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며, 명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C. 성경통독의 목적

그렇다면 통통성경의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다.

#### 1.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성경통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에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sup>21</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143.

후, 창세기 6 장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sup>22</sup>

창세기 1 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창세기 6 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한탄과 근심의 무게를 한 자락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또 다른 부모로 성장하는 것 아닐까? 그러한 차원에서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참으로 큰 유익인 것이다.

또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대 가운데 땀 흘려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면, 성경통독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sup>23</sup>

## 2.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실천하게 된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명과 이웃의 기쁨을 위한 계명,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으로 요약해 주셨다.<sup>24</sup>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례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었지만, 그 일에 헌신하며 동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sup>25</sup>

<sup>22</sup> 창세기 6:6

<sup>23</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1.

<sup>24</sup> 마태복음 22:37-40

<sup>25</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2.

또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분이셨으며,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위로와 온 인류의 기쁨이셨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구원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이 두가지 기쁨의 균형적인 실천을 꿈꾸게 되고, 살아 내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3. 성경통독을 통해 복음의 확장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sup>26</sup>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약 5백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sup>27</sup>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데, 만약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일들이 모두 별개의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그에 따라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신앙의 계승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다름 아닌, 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sup>26</sup> 창세기 15:5

<sup>27</sup> 출애굽기 1:7

<sup>28</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1.

교육하였으며, 그리하도록 유언을 남겼다. 아브라함도, 야곱과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유언을 남겼다.

필자가 가장 공감하는 성경통독의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물려 주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 확장되며, 성취되어 갈 일들은 분명, 나라와 민족,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들과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성경통독의 목적이, 단순한 유익이 아닌,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의 위대한 능력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서 성경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도 통통으로 ‘성경 이야기’ 를 있는 그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sup>29</sup>

---

<sup>29</sup> 조병호, 『3 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3), 4.

### III. 통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

#### A.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성경에서는 출애굽세대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 세대로 이해한다.

신약에서는 한 남자가 성장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는 기간을 한 세대로 본다. 그런가 하면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직계 가족, 일정한 기간에 속한 사람들, 또는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 등을 세대라는 말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조병호는 성경의 세대를 크게 네 세대로 말한다.

먼저, 만나세대이다. 만나세대는 출애굽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세대다.

두 번째는, 미스바세대이다. 미스바세대는 사무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형성된 세대다.

세 번째는, 재건설세대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체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운 세대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자 세대이다. 이들 세대의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만나세대는 40년, 미스바세대는 20년, 재건설세대는 상당히 긴 70년이다. 예수님께 의해 세워진 제자세대는 3년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세대와

세대들이 각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써 제사장나라,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확장시켜 갔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작업이 모든 세대에서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는 말한다(삿 2:10).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 잇기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모세는 만나세대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을 다해 가르쳤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4-9)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잇기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성공적 계승이 이루어졌으나,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앞선 세대의 잘못이다.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 잇기에 실패한 것은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한 가정에서 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 귀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저절로 부모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그 한 자녀에게 쏠리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 얼마만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물려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세상 어떤 지식도 완벽한 것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충분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가르쳐준다. 시간·공간·인간, 개인·가정·나라, 제사장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외교, 국방, 치안, 복지, 사랑, 우정, 미움, 복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것이다.<sup>30</sup>

아이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무릎에 앉혀 놓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이 아닌 성경 이야기를 부모가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 성경의 역사와 세계관을 연결하여 주는 탁월한 중점 사역인 셈이다.

그렇게 20 살까지 부모에게서 성경을 배운 자녀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고

<sup>30</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496.

성장시켰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며,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 B. 구약에서 본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민족적, 국가적, 개인적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성공한 결과물인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자세들을 구약에서 살펴보며,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민들의 혈통을 섞지 않은 채 남유의 왕족이나 귀족, 기술자 등 훌륭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올 때에, 남유다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통해서 제국의 통치 기반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한 것이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이 아닌 바벨론의 의식을 그들에게 주입하여 바벨론의 로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니엘 1장 이야기는 언뜻 보면 음식 이야기 같다. 바벨론은 음식을 비롯한 최고의 기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하려 하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단 1:8)라고 그 음식을 더러운 음식으로 결론 내린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 법 때문이고, 다니엘의 부모가 레위기 11장의 제사장 나라 법으로 지켜야 할 음식 이야기를 다음 세대인 다니엘에게 잘 가르치며 지키게 했던 결과였다.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난다.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게 된다.

후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탁월한 행정가로 발돋움한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완벽했기에 주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다니엘을 울무에 가둘 모략으로 범까지 만들어 시행한 사건이 사자굴 이야기이다.

사자굴 이야기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다니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다니엘의 기도는 레위기 26장과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기도이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의 성의 황폐함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의 배경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 9:2)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가지 환 중 세 번째 ‘칠십 이레의 환상’으로 하나님을 응답을 전한다.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예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끝 날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다. 이 모든 일들은 다니엘이 10대 때, 이방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낸 믿음의 자세들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 세우기가 있었고, 성공과 결과물로서 한 사람, 다니엘은 이방 제국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끌고 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다.

2.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느 1:1) 느헤미야서의 서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를 교육 받았다는 것, 즉, 그의 부모가 다음 세대 세우기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다.

B.C.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포로기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석득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울 꿈을 꾸고, 이를 기반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또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진심이었던 사역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훈련받은 바벨론 포로들이 70년의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하여 개력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튼튼히 세우게 된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세 시대까지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기반으로 기도한다.

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의 부모를 통해 성경, 즉, 모세오경을 배웠다는 증거이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 1:2~4)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을 통한 기도의 모범’이다. 그는 다섯 문장에 천 년을 압축해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소중한 지도자였다. 이것은 바로 부모들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 세우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B.C.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후 150여 년 가까이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은 누구도 감히 재건의 꿈을 꾸기 힘든데, 바로 그 꿈을 느헤미야가 품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맞물리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된다.

성벽 재건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했고, 그리고 정치적 모략과 암살 계획 등을 뚫고 느헤미야는 귀환 공동체와 함께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

느헤미야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한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귀환 공동체는 율법을 더 배우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키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레위인들이 앞장서 개혁과 회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 때의 울음이 느헤미야 때에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으로 바뀐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협력으로 제사장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의 배경에는, 부모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분명한 토양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C. 신약에서 본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

1.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다. 언뜻 보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1~32)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 24:44~48)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다음 세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디베랴 바닷가 호수로 제자들을 친히 찾아 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쉬운 비유를 사용하시며, 가장 좋은 교훈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소통하시며 몸소 보여주셨다.<sup>31</sup>

3년 간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 세우기에 집중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8)

그리고는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시키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음 세대(제자)는 예수님 없이, 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도행전 30년을 걸어간다.

<sup>31</sup> 론 헌터, 『신 6 죽어가는 주일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김원근 역 (성남: D6 코리아, 2016), 72

사도행전 30 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이다. 또한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의 ‘30 년 전쟁사’ 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 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세대 -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 4:6~10)

산헤드린 공회, 그 무서운 세력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향한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이 완전히 성공하였음을 증명해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3년의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사도행전 30 년을 모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 나간다.

2. 스테반과 디모데(평신도):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을 고소할 이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 스테반을 돌 처형하여 죽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테반은 평신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산헤드린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감당하지 못할 실력이 있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행 6:10)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의 ‘성령 충만’ 으로 ‘기사와 이적’ 을 행했고, 성령 충만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구약성경 39 권의 기록이 모두 예수에 관한 것임을 증거’ 했으며,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 하다가 순교하였다.<sup>32</sup>

평신도로서의 스테반이 이 정도의 실력과 믿음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라 기록하지만, 스테반의 구약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12 장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즉, 스테반은 이미 ‘구약성경과 4 복음서’ 의 성경 이야기에 정통했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말했던 것’ 이다.<sup>33</sup>

그것은 바로, 이미 유대 사회 내, 평신도 가정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한 부모들의 신앙의 노력과 사역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평신도가 또한 디모데일 것이다. A.D.64 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이

<sup>32</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63.

<sup>33</sup> Ibid., 68.

잡히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자 기독교 유대인들을 방화범으로 뒤집어씌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한다.

그러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게 되고, 이에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과 바울을 복음 1 세대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그 뒤를 잇는 복음 2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평신도로서 바울의 사역 팀에서 값진 수고와 헌신으로 사역하며, 또한 그 다음 복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여기서의 어려서는 영어로 ‘from Infancy’ 즉, ‘만 5 세’ 를 일컫는다.<sup>34</sup> 즉, 스테반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당시 믿음의 가정들이 만 5 세 때부터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딤후 1:5)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을 통해 디모데가 위대한 복음 1 세대들의 사역을 이어 받아 복음 2 세대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확장, 복음 전파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였던 이들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임을 성경을 밝히고 있다.

<sup>34</sup>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서울: 통독원, 2018), 82.

이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부모들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중심의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위한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이 끊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역을 통해 훈련 받은 다음 세대들이 어김 없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개인이 아닌, 민족적이고 국가적이며 교회적이 공동체적인 생명력 있는 성경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이끌어 가는 일꾼들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이며,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IV.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실제

##### A.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의 중요성

큰 그림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보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자녀에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교육함으로 어려서 큰 그림을 보게 했다.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을 채워 나갔던 것이다.<sup>35</sup> 그것이 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음에도 자신들의 정체성, 민족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리고 그들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작업은 다른 아닌 ‘이야기’ 형식이었다. 사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이야기의 종교였다. 그래서 Terrence Tilley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이고 뚜렷한 구조와 내용을 제공한다... 이야기는 단지 장식이나 예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제공한다. 기독교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sup>36</sup>고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성경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야기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교육과 신앙교육의 방법론일 것이다. 필자는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는 통성경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현재 목회하고 있는 능서상동교회의

<sup>35</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135.

<sup>36</sup> Terrence Tilley, *Story Theology*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0), xvii.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81 (2014), 298. 에서 재인용

다음세대와 관련한 사역들에 적용시켜 보아야겠다는 결정을 한 계기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본 장에서는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이라고 표기하겠다.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어린이서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Q·T를 한다. 같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예배와 소그룹, 가정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씀과 대화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신앙훈련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매 년 정기적으로, 주일 오후, 4주간 전 성도가 모여 Q·T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놀랍게도 지난 번, Q·T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확인하고 깨닫는 계기가 있었다.

## 〈그림 2〉 큐티 세미나 교재 예시



### 03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어요. 토끼는 바람처럼 달려 저만큼 앞서갔어요. 거북이는 맘을 풀리며 영급 영급 걸었어요.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쉬던 토끼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은 거북이가 드디어 이겼답니다. 놀라 잠에서 깬 토끼는 부끄러워 숨어 버렸습니다.

- 1) 위의 글을 읽고 옆 사람에게 상세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 2) 학습에서 독서에 관한 요령
  - ㄱ. **훑어보기**: 제목, 소제목, 첫 부분, 마지막 부분 등을 위주로
  - ㄴ. **자세하게**: 차분히 읽으며 내용의 하나 하나를 파악해가면서
  - ㄷ. **되새기기**: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
  - ㄹ. **다시보기**: 읽은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시 빠르게 읽는 것
  - ㅁ. **질문하기**: 내용 속의 **여러가지 의미들을 마음속으로 묻는 것**
- 3) **질문독상법** 질문을 하면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ㄱ.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 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 ㄷ.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 ㄹ. 왜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
  - ㅁ.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많은 질문을 할수록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 주차, ‘제 4 강, 큐티의 실제’ 를 진행하며, 성경 묵상을 위해 바람직한 읽기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한국 전래 동화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천천히, 띄어 읽기 하며, 질문하며 읽어 본 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문을 보지 않고 직접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지문: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어요. 토끼는 바람처럼 달려 저만큼 앞서갔어요. 거북이는 땀을 흘리며 엉금 엉금 걸었어요.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쉬던 토끼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은 거북이가 드디어 이겼답니다. 놀라 잠에서 깬 토끼는 부끄러워 숨어 버렸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몇 사람이 앞에 나와 대표로 이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보았다. 당시 옆에 앉아 있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전했던 남자 권사가 앞으로 나와서 손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전체 성도에게 전했다.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다.

남자 권사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 “달리기가 빠른 토끼가 잘난 척을 하려고 달리기가 느린 거북이에게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예상대로 토끼는 ‘쌩’ 하고 앞서 나갔지만, 거북이는 실망하지 않고,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갔어요. 자만했던 토끼는 거북이가 뒤따라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 ‘쿨, 쿨.’ 잠이 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느린 거북이는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이 걸어가 결국 토끼를 이겼어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잘 안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필자인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남자 권사는 그리 높은 교육 수준의 사람도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탁월한 성도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옆에 앉아 있는 손자와, 또한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맛깔 나게 심지어 신앙적인 교훈을 더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필자는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통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서의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교육하였을 때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체성이라는 작은 그림들을 채워가며, 살아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다.

그 비전과 소망의 일안으로 필자는 현재 담임하고 있는 능서상동교회에서 통성경을 통한 이야기 사역을 전반적인 목회 영역에 접목하여 보았다. 이제부터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실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B.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외곽에서 설교를 받쳐 주고 매일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방편’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sup>37</sup>

어찌 보면,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비중을 들이는 영역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다음 세대에

<sup>37</sup>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5), 41.

관련된 여러 사역의 분야에 적용시키기에 앞서, 필자의 설교 사역에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하였다.

필자가 가장 많은 성경말씀과 언어를 쏟아내는 사역의 현장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설교일 것이다. 필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3년 정도를 보내며, 약 9년 정도의 시간을 적어도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프레임 안에서 설교를 작성하여 전하려고 하였다.

1. 본문에 관련된 서적 또는 시문 사설을 읽고, 검증된 예화를 준비하여 설교를 시작할 것.
2. 설교의 대지를 세가지(첫 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설교할 것.
3. 설교의 제목과 각 대지의 소제목은 본문 성경구절에서 고를 것.
4. 각 대지마다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에서 세 구절 이상 연결시켜 설교할 것.

부끄럽지만, 통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십 수년 간 붙잡고 있었던 필자의 형식화되고 고착화된 설교 방식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조병호는 “ ‘모든 성경’ 을 ‘모든 성경’ 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은 ‘성경 전문가’ 로 특권과 사명을 도시에 받은 일부 설교자들이 언제부터인가 ‘모든 성경’ 보다 ‘예화주의’ 와 ‘요절주의’ 를 선호했기 때문”<sup>38</sup>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설교의 형식을 내려 놓고, 통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은 성경의 사건들을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들을 함께 제공하며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설교해 보았다.

<sup>38</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9.

설교 예시 1) 제목: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본문: 호세아 9 장

10 절

〈그림 3〉 설교 예시 1)의 설교 당시, 사용된 이미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눅1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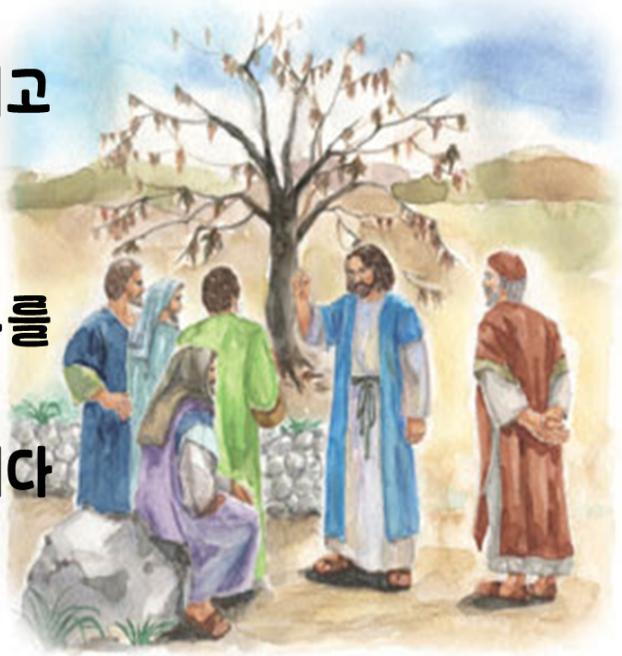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후자의 시간**





**모압여인들과 음행, 바알 우상숭배를 저지른 바알브올사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베다니에 나가셔서  
시장하신지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마가복음 11장**



시작하는 예화로 누가복음 13 장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열매 맺도록 도와시는 예수님 성실하심, 그럼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혀 버리지는 심판에 대해 나누었다.

설교의 형식을 ‘통성경 - 이야기 사역’ 방식을 적용하면서부터 변화된 가장 뚜렷한 점은, 설교를 시작하는 모든 예화를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통통성경이기 때문이다.

예화의 모범적인 사례는, 예수님께서 농부와 어부와 장사하는 사람들과 주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들이다.<sup>39</sup>

그런 후, 호세아 선지자가 회상했던 800년 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투자의 시간이셨음을 소개했다.

하지만 민수기 25장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800년이 지난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그 모습이 수십년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진단했다.

그렇게 약 7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여전히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며, 주신 기회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함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다.

설교 예시 2) 제목: “헤롯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본문: 마가복음 6장 14~44절

<sup>39</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10.

〈그림 4〉 설교 예시 2)의 설교 당시, 사용된 이미지



**헤롯의 잔치: 죽음**

**예수님의 잔치: 생명**

세계성찬주일을 맞아, 성찬만 예식을 진행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이며, 첫번째 성찬식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떼어 먹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들임을, 그리고 성찬식은 그러한 성도들의 잔치와도 같음을 설명하였다.

그런 후, 본문이 담고 있는 ‘잔치’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헤롯의 잔치 이야기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 이야기를 전하였다.

결론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헤롯의 아들로서, 헤롯의 잔치,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삶인, 낮아짐과 섬김, 희생과 헌신, 용서와 사랑, 거룩한 삶, 대속적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자는 권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였다.

C.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Brenda B. Colijn 에 의하면 성경의 언어에서 가족(family)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대신 히브리어와 희랍어에서 가족을 지칭할 때 가정(household)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bayit” (house)와 “bet ab” , (father’ s house)는 각각 “집” 과 “아버지의 집” 을 뜻했고, 희랍어의 “oikos, oikia”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생물학적 개념의 가족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에 가까운 “집(house)” 또는 “가정(household)” 이었다는 것이다.<sup>40</sup>

추정해보면 이는 가족 또는 가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타적이고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이었다.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연결된 경우 이외의 종들과 노예, 손님들이 포함된 것이다.

능서상동교회 교회학교(6~13 세)는 약 12~15 명의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있다. 예배 외의 활동으로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서, 다음 날인 주일 오전 까지를 특별한 주제를 잡아 교회에서 공동체 활동 및 합숙을 한다.

그 이유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특히나 불신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제 2 의 가족,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경험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함께 대화하고, 먹고, 놀고, 자며, 정말로 수많은 관계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던 교회학교 공동체를 소개하겠다.

1. Q · T 나눔 및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2. 점심식사
3. 레크레이션 또는 특별 활동(물놀이, 썰매장, 스포츠, 공예 등)

---

<sup>40</sup> Brenda B. Colijn, “Family in the Bible: A Brief Survey, ” *Ashland Theological Journal* (2004), 73.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 (2016), 397. 에서 재인용

4. 휴식 및 저녁 식사
5. 기도회
6. 성경이야기 진행 후, 취침
7. 다음 날, 교회학교 주일 예배 후, 귀가

〈그림 5〉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포스터



**너의 새학기를 응원해!**

## 새학기 응원 일일 캠프

- 날짜: 2월 22일(토) 오전10:30~
- 회비: 1만원
- 활동: 큐티·점심·워터파크·저녁(바베큐)
  - ※물놀이준비: 수영복, 수영모자, 구명조끼, 튜브 등
  - ※합숙준비물: 큐티, 세면도구, 잠옷, 양말 등
  - ※당일 교회합숙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 문의: 이은혜 사모 010.4728.0422

능서상동교회 교회학교

〈그림 6〉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사진



앞선 그림 5의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때는, 요한복음 14장 25~31 절의 말씀을 오전에 묵상한 후에, 저녁에 취침하기 전, 오전에 묵상한 말씀과 연결하여, 사도행전 1장의 증인이 된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루를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능서상동교회 교회학교 공동체에서 중점을 두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정의 처음을 성경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일정의 끝을 성경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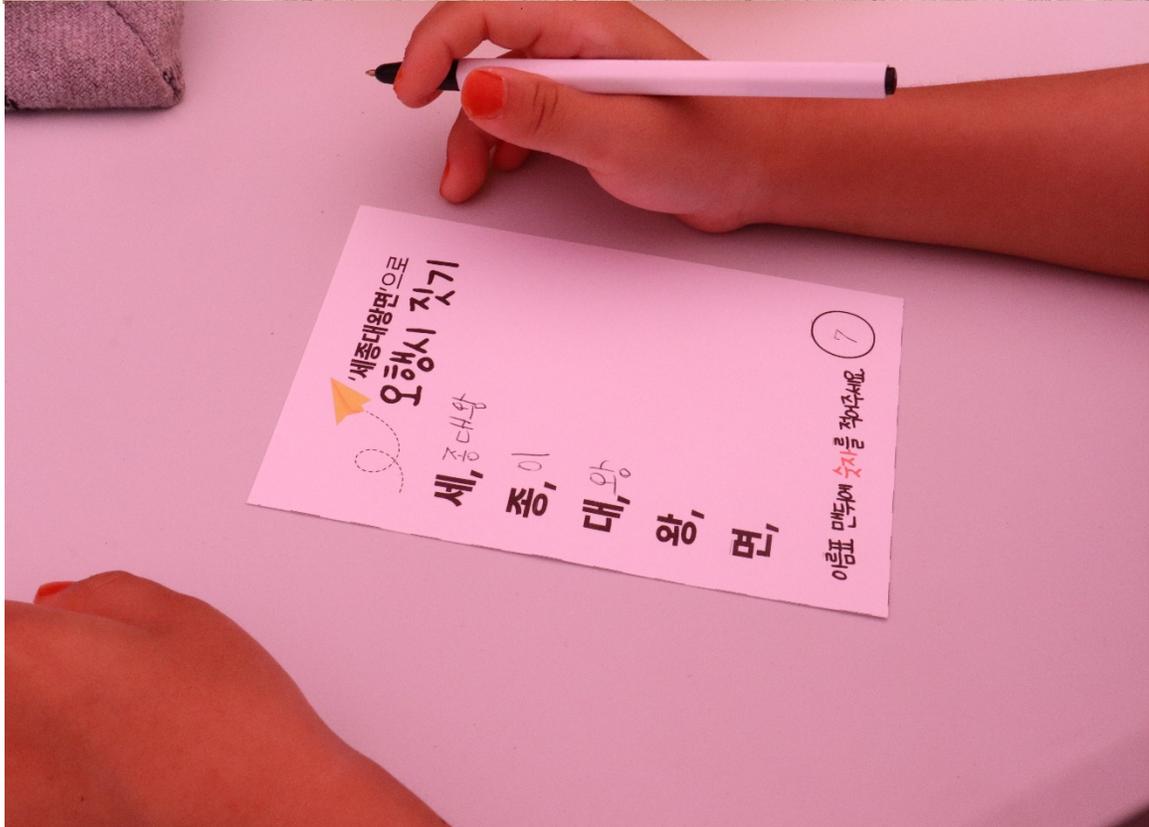
보통의 교회학교 사역은 어린이들의 참석과 참여 유도를 위해 놀이와 행사 위주로 활동들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경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야기되는 곳임을 인지시켜 주자는 것이 연구가의 교회의 교육 목표이다.

더불어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와 주입식 교육으로 수직적이며, 수동적인 공간이 아닌, 먹고, 놀고, 자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평적이며, 능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인식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다.

#### D.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지역아동 행사

능서상동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는 전교생, 약 70여명 정도가 출석하는 초등학교가 있다. 능서상동교회는 학기별 연 2회,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종이비행기 대회”라는 지역아동 행사를 실시해 왔다.

<그림 7> 지역아동 행사 - 종이비행기 대회 사진





토요일에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종기와 관련된 다채로운 활동 및 레크레이션(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세종대왕면’ 오행시 짓기, 딱지치기 등)을 진행하여, 복음 위주의 사역보다는 재미와 시상 위주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회에서 평일에 진행하는 행사이기에 신앙적인 색깔보다는, 교회가 편하고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논문을 진행하며,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으로 지역아동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아지트데이” 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해 보았다.

1. 등록 및 인사(교회 및 취지 소개)
2. 솔로몬 재판과 기도 이야기
3. 아지트놀이 체험(굿뉴스팔찌, 트릭샷, 소리질러, 흔들흔들, 뚜껑컬링 등)
4. 솔로몬 재판과 기도 이야기 직접 해보기
5. 단체사진촬영 및 각종 시상
6. 점심 식사
7.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귀가 하도록 함.

<그림 8> 지역아동 행사 - 아지트 데이 큐시트

**능서상동교회 아지트데이 큐시트**

24.11.30(토).오전10시, 능서상동교회 마당

시 간	순 서	내 용	준비 & 장소	담 당
10:00-10:10	등 록	1) 방명록 작성(내용: 학교·학년·이름) 2) 라벨명찰 부착(이름) 3) 본당안내	1층 현관 방명록, 라벨지, 펜	길인숙 교사 최정숙 교사
10:10-10:15	인 사	1) 교회소개, 2) 취지소개, 3) 학생들소개(학년별)	2층 본당	이은혜 교사
10:15-10:30	이야기	솔로몬 재판과 기도 이야기	-	최종은 목사
10:30-10:40	설 명	1) 게임설명: 트릭샷, 굿뉴스팔찌(행운권), 소리질러, 흔들흔들, 내가킵잡, 뚜껑컬링 2) 장소설명: 1층 3) 일정설명	-	김태진 집사
10:40-10:45	대 기	1) 퀴즈 2) 내려보내기	-	김태진 집사
10:45-11:20	놀 이	1) 트릭샷: 탁구공 10개를 튀겨서 통에 집어 넣기 *많이 넣은 어린이 이름 기록 2) 굿뉴스팔찌: 복음을 듣고, 복음팔찌 만들어 차기 *후, 행운권 참여 기회 제공 3) 소리질러: 누구 목소리가 클까? 3회도전 *가장 높은 데시벨 어린이 이름 기록 4) 흔들흔들: 1분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만보기 숫자 높은 어린이 이름 기록 5) 내가킵잡: 종이컵을 몇 개 까지 쌓을까? *많이 쌓은 어린이 이름 기록 6) 뚜껑컬링: 5개의 뚜껑을 글라 컬링 *책상골 가장 가까운 어린이 이름 기록	탁구공, 통, *랭키보드&마카공등 복음팔찌, 행운권용지&통 데시벨측정기 만보기, 음악과 화면,시계 상,종이컵 책상,병뚜껑,기록스티커	각 담당자 및 학생부 제자들
11:20-11:40	시 상	1) 단체사진촬영 2) 시상 & 솔로몬이야기해보기 3) 행운권 및 식사 안내	2층 본당 1,2,3등 명단, 행운권 통 및 각종 선물	최종은 목사
11:40-12:20	식 사	컵라면, 김밥, 음료수, 아이스크림	1층 식당	어선교회
12:20-	귀 가	1) 자유롭게 놀다가		

<그림 9> 지역아동 행사 - 아지트 데이 활동 사진



당시 중점을 두었던 것은, 행사를 시작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며,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솔로몬 왕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신앙적인 이야기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런 후,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며, 참여한 어린이들이 행사를 시작할 때 들었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다른 어린이들 앞에서 이야기 발표해보도록 하였다. 자연스럽게 불신자 어린이들이, ‘솔로몬, 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다.

〈그림 10〉 불신자 어린이들의 솔로몬 재판 이야기 시연 사진



## E.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청소년 수련회

필자는 본 논문을 연구하는 기간 동안,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의 아래와 같은 청소년 수련회의 저녁 집회 설교 부탁을 받게 되었다.

1. 일정: 2024년 7월 25일(목) ~ 27일(토)
2. 주제: Build Up
3. 본문: 에베소서 2장 20~22절
4. 대상: 중등부 약 1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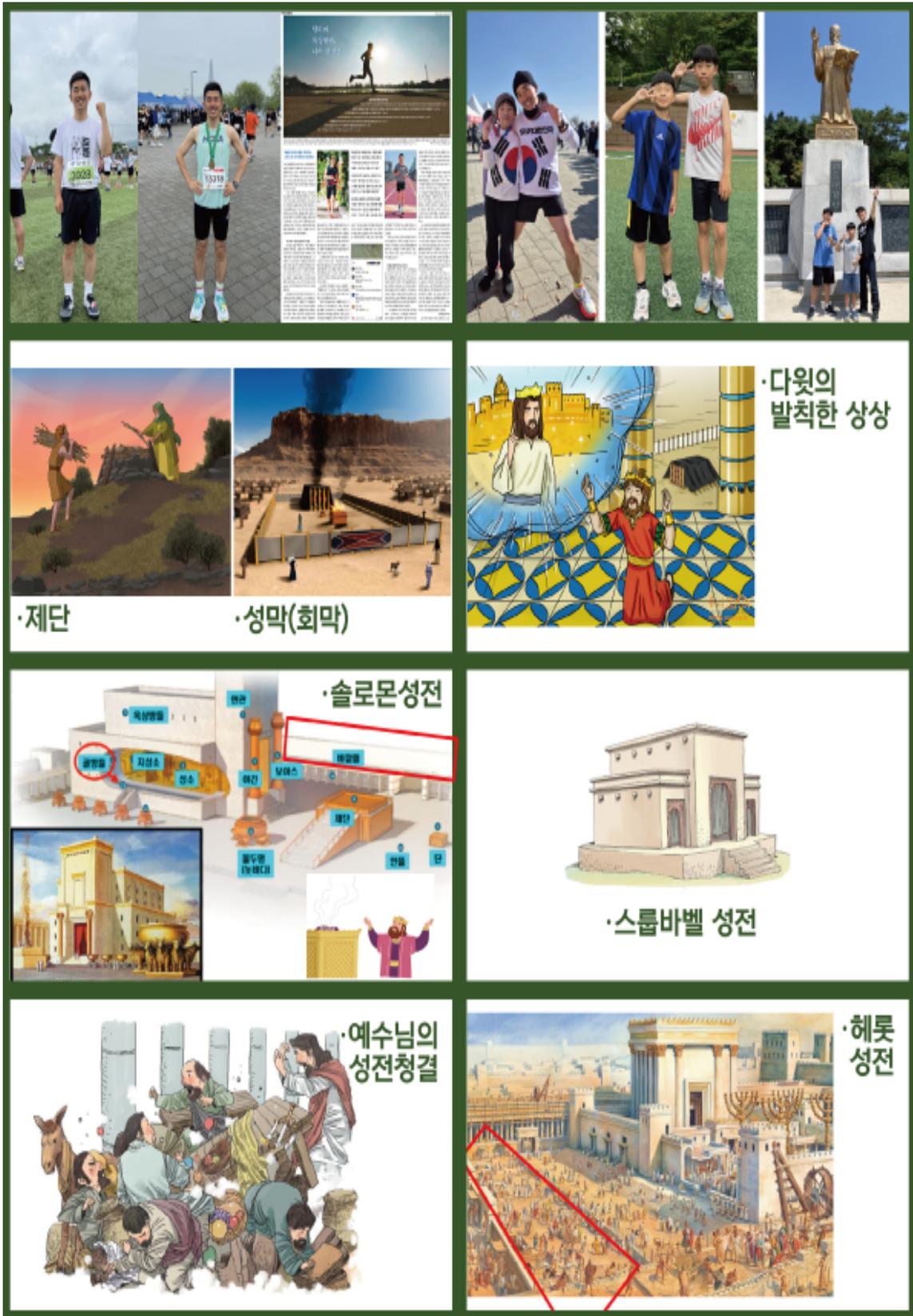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상태는 다양하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청소년, 부모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청소년, 친한 친구를 따라 수련회를 통해 교회 문화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과 같은 여러 참석 사유들이 있다.

‘빌드업’이라고 하는 수련회의 주제를 확인하고는 고민하지 않고, ‘통성경의 예루살렘 성전 1,000년’과 ‘너희 몸이 성전’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며 설교하는 형식이 아닌, 정치, 역사, 교회,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의 이야기들로 아래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여 갔다.

첫째 날 집회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제목: 리빌딩 - 이방인의 딸을 회복하자.
2. 본문: 마가복음 11장 11~17절
3. 내용: 제단과 성막,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발칙한 상상,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낙성식 기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첨부하여 함께 이야기로 진행하며, 우리의 교회와 부서, 공동체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촉구하였다.

〈그림 11〉 청소년 수련회, 첫째 날 설교 당시 사용한 이미지



둘째 날 집회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제목: 리모델링 - 그리스도로 옷 입자.

2.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8절

3. 내용: 제자들의 성전 자랑, 성령을 기다리라며 승천하시는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이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 사도 바울의 너희 몸이 성전, A.D.64년 로마대화재 사건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첨부하여 함께 이야기로 진행하며, 건물로서가 아닌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 예수로 옷 입고, 마지막 때를 잘 이기며 승리하자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림 12〉 청소년 수련회, 둘째 날 설교 당시 사용한 이미지



〈그림 13〉 청소년 수련회 설교 사진



이틀 간의 저녁 집회의 설교가 끝나면, 담당 사역자에게 부탁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해간 그 날의 이야기 설교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당일 일정이 끝날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아는 대로 적어보고, 적용하여 보도록 하였다.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이 여러 배경과 상황 속에서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이해되고 교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림 14〉 청소년 수련회 설교 피드백을 위한 설문지

### 말씀체크 “리딜빙-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자” 막11:11~17

1) 아래 ○안에 들어가 말을 채워 넣어 보세요.

제단→성막(회막)→○○○성전→스룹바벨성전→○○성전

2)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내 집은 ○○이 ○○하는 집이라”

3) 유대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의 어느 장소였나요?

“○○○의 뜰”

4) 나에게 다시 리빌딩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말씀체크 “리모델링-그리스도로 옷 입자” 벧전4:1~8

1)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건물로서의 ○○의 기능이 끝났다.

2)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그 사명과 기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모임은?

“○○”

3) A.D.64년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요?

“○○대화재사건”

4)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는 어떠한 교회가 되고 싶은가요?

## F.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사 교육

이찬용 목사(부천 성만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바뀌는 교역자, 시간과 힘이 안 되는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담당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사나 부장이 아이들과 뒹굴며 어울리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자주 바뀌는 교육 전도사 때문에 아이들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그 교회와 오랫동안 함께 하는 교사가 있는 한,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복음을 믿고 전하는 한 명의 교사, 그 교사가 참으로 귀합니다.”<sup>41</sup>라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에 교사의 필요성과 비중이 목회자보다 큼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한 통성경을 통한 이야기 사역을 능서상동교회에서의 전반적인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그 소통들 속에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러한 통성경을 통한 이야기 사역을 바탕으로 한 다음 세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통성경으로 교사 교육을 학기별로 실시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정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필자가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이 필자의 교회에서 정말로 나 ‘한 사람’ 으로 끝나지 않기를 조마조마해하며, 기도하고

<sup>41</sup> 이찬용, 『한 교사의 힘』 (서울: (주)넥서스, 20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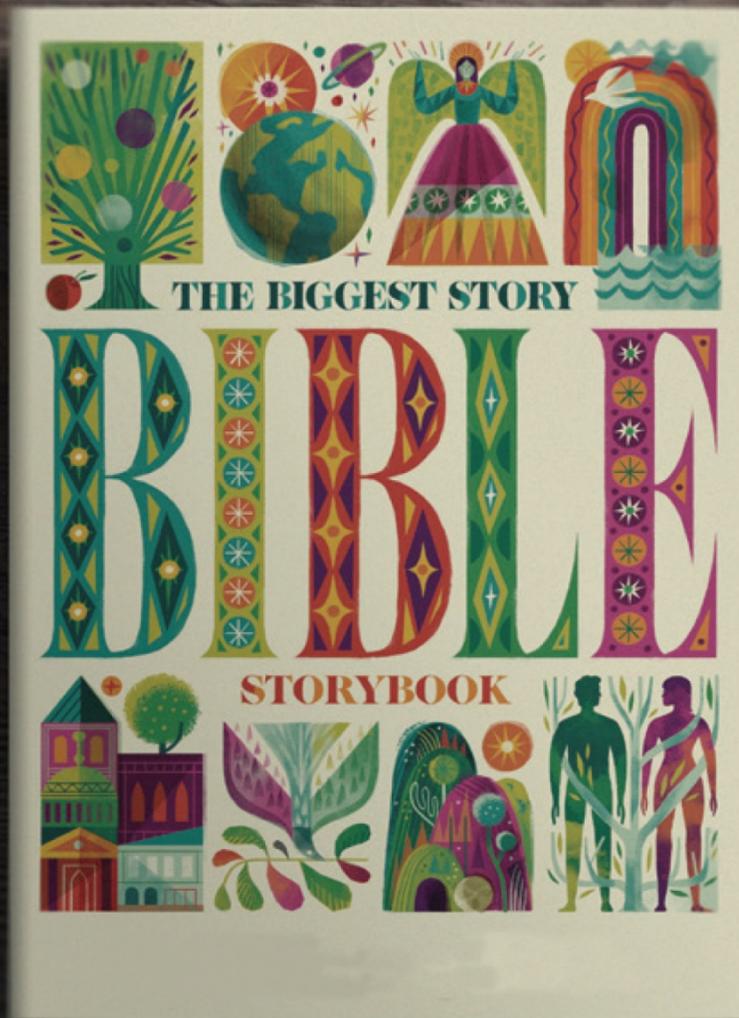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이 될 후보선수들이, 무려 네 명이나, 심지어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교사들이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비록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쁘고 분주한 교사들이지만, 교회학교 어린이들과의 예배, 설교, 분반공부 안에서의 풍성한 이야기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야기 성경공부방’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교사교육을 진행하였다.

1. 강의명: 이야기 성경공부방
2. 주제: 성경과 5대 제국 이야기
3. 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7주간
4. 대상: 교회학교 교사
5. 교육 내용: 1주차/ 선지자와 5대 제국, 2주차/ 사마리아인과 앗수르 제국, 3주차/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4주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5주차/ 유대인과 헬라 제국, 6주차/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7주차/ 5대 제국과 성전
6. 교육 과제: 7주간, 그 주에 배운 성경과 5대 제국 내용 속에서 기억에 남는 제국의 이야기 한 가지를 가까운 사람(부부, 자녀, 직장 동료, 속회 식구 등)에게 이야기로 전달해보기

또한 2회차 교사교육부터는 교회학교 예배 때 진행하는, 공과 과정에 맞는 통통성경 시리즈를 준비하여, 교사교육을 진행하여서, 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는 반 어린이들에게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도록 해보도록 권장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그림 15〉 교사교육: 이야기 성경공부방 포스터



# 이야기성경공부방

쓰지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11월 5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7:30, 7주간 모입니다.  
 위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을 말씀을 오셔서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림 16〉 교사교육: 이야기 성경공부방 활동 사진



## V. 이야기 사역 참여자들의 인터뷰

### A.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터뷰

능서상동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이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아침부터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먹고, 노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려 한다.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잠옷을 입고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고, 잠이 깨어, 함께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내용들을 이상하리 만치 기쁘하고 만족해한다.

인터뷰에 응하여 준, 교회학교 어린이는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을 학교 친구에게 자랑하여, 최근 그 친구가 전도되어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을 기다리며 몇 주째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얻기도 하였다.

비교적 유년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한 대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 박○○(8세, 여, 초등학교 1학년)

\*이번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운 것”

\*취침 전,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공동체에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 보고 싶어요.”

#### B.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지역아동 행사에 대한 인터뷰

기존의 놀이와 흥미 위주로 행사로 진행해 오던, ‘종이 비행기 대회’를 성경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중간에 진행하던 여러 가지 놀이 부스 중, 복음 메시지를 설명하고 팔찌로 만들어보는 코너를 집어넣어, 불신자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교회의 문화를 접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변화를 준, ‘아지트 데이’ 지역아동 행사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느때보다 긍정적이었다.

인터뷰 내용: 길○○(53세, 여, 초등부 교사),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힘들고,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보고 싶어도, 부모들의 반대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교회학교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는 지역아동 행사를 통해 늘 불신자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러 오고,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교회여서 감사할 뿐입니다. 게다가 전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러 와도 행여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집에 돌아가 부모들에게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의 소개와 복음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지 못하였던 것이 내심 마음 한 켠이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지트 데이’ 를 통해, 일반 이야기 같고, 정치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으면서도 성경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교회에 처음 놀러 온 불신자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말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로 행사를 시작하니, 제가 진행한 복음 팔찌 만들기 부스에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죄와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며, 함께 팔찌를 만들 수 있어서 진행이 한 편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할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 이야기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서 참 뜻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C.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청소년 수련회 설문

#### 1. 첫째 날 집회 설문 조사 (설문 대상: 학생 107 명)

\*아래 ○안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어 보세요.

· 제단 → 성막(회막) → ○○○성전 → 스룹바벨 성전 → ○○성전

- 1) ‘솔로몬, 헤롯’ 이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94 명이었다.
- 2) 빈칸으로 두거나, 정답의 부분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13 명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 내 집은 ○○이 ○○하는 집이라.

- 1) ‘만민, 기도’ 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86 명이였다.
- 2) 빈칸으로 두거나, 정답의 부분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21 명이였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의 어느 장소였나요?

· ○○○의 뜰

- 1) ‘이방인’ 이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101 명이였다.
- 2) 빈칸으로 두거나, 오답을 적은 학생은 107 명 중, 6 명이였다.

\*나에게 다시 리빌딩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위와 같은 서술적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믿음, 기도, 주님을 찾는 마음, 내 성격, 주님과 의 첫 사랑, 신앙생활, 죄, 예배 태도, 외모, 건강 등과 같은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내용들을 작성하였다.

- 2) 아무런 내용을 적지 않은 학생은 107 명 중, 35 명이였다.

## 2. 둘째 날 집회 설문 조사 (설문 대상: 학생 113 명)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아래 ○안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어 보세요.

· 건물로서의 ○○의 기능이 끝났다.

- 1) ‘성전’ 이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13 명 중, 109 명명이였다.

2) 빈칸으로 든 학생은 113 명 중, 4 명이였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그 사명과 기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이어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 ○○

1) ‘교회’ 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13 명 중, 92 명이였다.

2) 빈칸으로 두거나, 정답의 부분을 적은 학생은 113 명 중, 21 명이였다.

3) 오답의 종류에는, 예배, 기도가 있었다.

\*A.D.64 년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요?

· ○○ 대화재 사건

1) ‘로마’ 라고 정답을 적은 학생은 113 명 중, 111 명이였다.

2) 빈칸으로 두거나, 오답을 적은 학생은 113 명 중, 2 명이였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는 어떠한 교회가 되고 싶은가요?

1) 위와 같은 서술적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교회,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교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멋진 교회, 착한 교회, 언제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교회, 미움과 시기가 없는 교회, 밝은 교회 등과 같이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내용들을 작성하였다.

2) 아무런 내용을 적지 않은 학생은 113 명 중, 22 명이였다.

설문지를 통한 설교자와 학생들의 소통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성경 - 이야기 사역으로서의 설교를 통해 기억해야 할 단어들과 신앙적 의미와 적용해야 할 신앙적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D. 통성경 - 이야기 사역과 교사 교육에 대한 인터뷰

‘이야기 성경공부방’ 이라고 하는 교사교육을 통해 7주간 성경과 5대 제국 이야기를 들었던 네 명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유익한 점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짧게나마 전하는 과제가 부담이 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뿌듯함과 새로운 도전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중 소감문으로 작성된 한 교사의 인터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인터뷰 내용: 이○○(39세, 여, 유년부 교사), 7주간의 이야기 성경공부방을 통해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과 맞물려 성전이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한 역사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성전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유대 분파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관계되어 가는지 지켜보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며, 한번도 해보지 못한 공부였기에 참 뜻깊었습니다.

또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제사장 나라와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비교적 신약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비중이 많은데,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연결,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르쳐 주면 훨씬 더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람 있는 교사교육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무 부분적이며, 편협한 나의 지식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들도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만큼은 아니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과 연구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제자를 삼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 VI. 결론

### A. 요약과 평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학교의 미래가 어둡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학교를 출석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생명이며 수명임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세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어린이가 없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문제 제기 속에서,

본 논문의 I 장에서는, 개체 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교육하는 ‘한 사람’ 으로서의 목회자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한 사람’ 으로 길러내는 사역의 중요성을 내비치며, 그러한 탁월성으로 통성경을 제시하며, 통성경의 이론과 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그에 따른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목회 영역 전반에 걸쳐 실제적으로 진행해 볼 것이라는 연구의 방법을 밝혔다.

II 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탁월성으로 통성경의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또한 한 그림으로 보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미지와 이야기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이론적으로 풀어 놓았다.

III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왜 교회와 목회자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도 짧게는 70년에서 길게는 천 년 이상의 성경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부모들의 사역과, 그 결과물로서의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으로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갔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소개하였다.

IV장에서는 통성경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중심의 사역을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능서상동교회의 다음 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 안에서 적용시켜 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적용시켜 본 다음 세대와 관련된 사역으로는, 설교, 교회학교 공동체 활동, 지역아동 행사, 청소년 수련회 집회, 교사 교육이다.

V장에서는 실제적인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인터뷰와 설문 조사 내용을 소개하였다. 대상은 ‘통성경 - 이야기 사역’에 참여하여 함께 수고한 교사, 참여하여 경험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다. ‘통성경 - 이야기 사역’ 방식이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부담 없이 그리고 유연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그리고 스스로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탁월한 대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었다.

## B. 결론과 제언

필자는 본 논문을 위하여, 필자가 목회하는 능서상동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역의 방식들을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적용하여 1년

6개월 정도 진행하였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십 수년간을 묵회하며 습득하고 고착화되어 있는 사역의 고집 아닌 스타일과 언어, 사상, 가치관들을 내려 놓아야 하는 쉽지 않은 연구의 시간이었다.

필자도 이 사역을 진행해가며, 본 논문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줄곧 해 왔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한 사람’은, 설교를 잘 하는 묵회자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교사이다.

본 논문을 일추 마무리해 갈 즈음, 2014년부터 3년 간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사역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당시 천안에 위치한 ○○○교회는 교회학교 어린이가 약 800명 이상 출석하고, 교사가 200명 이상 헌신하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였다.

그 정도의 교회학교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교회만의 고유한 가치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사역 중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구절과 기도문, 그리고 사영리를 암송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영리는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불신자에게 성경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도책자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주일 예배 후, 오후가 되면 선생님이 나눠준 사영리가 정리된 페이지를 암송하는데 열심이었다.

정기적으로 사영리 암송 대회를 열어 제한 시간 안에 암송하는 어린이들에게 시상도 하였다. 필자는 당시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기에 사영리 암송 대회 감독관 역할을 했었는데, 목사와 교사들 앞에 다수의 어린이들이 사영리가 적힌 아래 그림의 페이지를 들고 외우며 암송 시험을 본 것이다.

〈그림 17〉 사영리 암송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교부된 양식

## 사영리 암송

사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10)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 제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 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은 죄에 빠져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귀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 일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 사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23)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 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 전서 15:3-6)

###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제 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8-9)

###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20)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문**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학교에 출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여학생이 위의 페이지를 ‘들었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며, 목사와 교사들 앞에서 암송 시험을 치렀지만 뜻대로 암송이 되지 않자, 서럽게 울며 포기했던 모습이 아른 거린다.

아직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채 다 배우지 못한 학생에게 열두절이 넘는 성경 구절과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이어지는 신학적인 단어들만 절대로 이해되고 외워질리가 만무한 것만, 수백명의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기독교 교육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다.

몇 개월 전,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교육부장으로 헌신한 장로가 전화가 왔다. 다음 세대를 위한 탁월한 교육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다. 암송시키고, 조직을 만들고, 경쟁을 시키는 교회 교육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세대를 연결시키는 일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필자는 전화를 걸어온 장로의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후회 섞인 고민과 탄식에 깊이 통감하며, 이 논문의 연구가 끝날 즈음 연락하여 함께 더 깊은 고민을 해보자고 독려하였다. 그때 이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날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한 사람’은, 설교를 잘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교사이다.

사영리를 암송하지 못해, 서럽게 울던 여학생은 현재 청년이 되어 출석하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고마워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우리 ‘한 사람’이 통성경을 연구하고, 습득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평생 기억 남도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이야기’ 해주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연구하며, 다음 세대와 관련된 목회의 영역에서 ‘통성경 - 이야기 사역’을 적용하여 보았지만, 논문의 연구를 마친 후에는, ‘통성경 -

이야기 사역' 을 교회 모든 세대에게 적요하여, 세대와 세대,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성도와 불신자를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하려 한다.

이러한 '한 사람' 의 '이야기' 를 통해,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스테반과 같은 목회자, 평신도, 한 세대와 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이병렬.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 이찬용. 『한 교사의 힘』. 서울: (주)넥서스, 2015.
- 조병호. 『3 시간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3.
- 조병호. 『48 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4.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1.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通하는 레위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 하용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7.

### 2. 번역서적

랍비 조셉 텔루슈킨/김무겸 옮김.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서울: 북스넷, 2012.

론 헌터/김원근 옮김. 『신 6 죽어가는 주일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성남: D6 코리아, 2016.

마틴 로이드 존스/정근두 옮김. 『설교와 설교자』. 서울: 복 있는 사람, 2005.

솔로모 산드/김승완 옮김. 『만들어진 유대인』. 고양: 사월의 책, 2022.

### 3. 학술논문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학과 세계 88 (2016), 397. Brenda B.

Colijn, “Family in the Bible: A Brief Survey, ” *Ashland Theological Journal* (2004), 73.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81 (2014), 298. Terrence Tilley, *Story Theology* (1990), xvii.

### 4. 신문, 인터넷

중부일보. “경기도 23개 시군, 인구소멸 '위험·주의'...대책마련 시급” 이지은 (2022).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26490> [2025. 03. 10. 최종접속]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ongeun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Jecheon, South Korea, February 26, 1985

Parent`s Names: Ingyu Choi and Jeongsoon Ko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emyung High School</b> 88,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Feb 11, 2003
egiate: <b>Hyupsung University</b>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B	Feb 12, 2008
Graduate: <b>Hyup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b>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 M	Feb 9, 201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ongeun Choi

February 26. 2025